

# 폼페이오 “北, 우리와 손잡으면 베트남 길 간다”

### 베트남 재계인사와 자리서 발언 “김정은 핵포기엔 경제보상 북한과 파트너십 희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으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방북한 뒤 8일 일본에서 한 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하고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 선택은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그들이 이걸 한다면(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김 위원장은 한국인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적들과도 약속을 지킨다고 선언하면서 1995년 미국-베트남 수교 이후 체험한 베트남의 경험이 수십 년간의 갈등과 불신을 겪은 북한에도 변명과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북한에) 진짜 가능성이라는 걸 믿는다. 베트남이 이 놀랄만한 여정을 어떻게 밟아왔는지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미국과 베트남)가 협력하고 있고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 나라가 미국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가 미국의 약속을 완수한다는 증거”라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제보상과 체제안전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거듭 언급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어 “베트남에 대해 한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번영과 (미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에 비취볼 때 나는 김정은(위원장)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기회를 잡으면 이것은 당신의 것이다. 이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것(베트남의 기적)은 북한에서의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이틀간 머물 예정인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베트남 지도자들이 비핵화된 북한과 규칙을 기반으로 한 남중국해에서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미국 CBS 방송의 카일리 에트워드 기자는 트위터에 “폼페이오가 베트남이 이룬 성공을 북한이 미국에 협력하면 이룰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성공에 비유했다”고 썼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적 절연” vs “대화의 첫 출발” 반응 갈려

### 美 언론들 폼페이오 방북 평가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북미간 인식차에 주목했다.

미 CNN 방송은 애초부터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8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미국과 북미관계 수립을 앞세우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했다.

CNN은 이번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고 표현했다. WP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그 자체의 부정적인 톤보다는, 북한이 핵폐기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어느 때보다 주목할 만한 신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엘 워트 스티븐슨 수석연구원은 WP에 “확실히 그들은 이것을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동시적인 접근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40〉 안녹산의 부장 사사명

사사명(史思明, ?-761)은 반란을 일으킨 안녹산의 부장으로 안녹산 사후 당 조정에 귀순했으나 다시 반란을 도모한 무장이다.

돌궐족 출신으로 초명은 솔간인데 현중으로부터 사명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 안녹산과 동향인으로 6개 언어에 능통했다. 유주절도사 장수규 밑에서 전공을 세워 작생장, 대장군 등을 거쳐 평로명마사가 되었다. 안녹산의 측근으로 751년 거란과의 싸움에서 그를 구하였다. 산의 계곡에 들어가 근 20일 동안 있으면서 병사 700명을 모아 사정방과 함께 안녹산을 구출했다.

안녹산이 그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얻었으니 어찌 다시 격정이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752년 하북성 북평태수를 겸하였다. 755년 안녹산이 하북에서

그러나 당 황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북성 신도태수 오승은은 은밀히 그를 몰락시킬 계락을 꾸렸는데 사사명이 집을 뒤져 이광필의 첩자와 그를 따른 반란자 명단을 찾아냈다. 그는 서쪽을 향해 크게 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신은 13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조정에 항복하였는데 폐하께서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신을 죽이려 하십니까?” 오승은 부자를 매질해 죽이고 다시 반기를 들었다. 당의 어설픈 공작으로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는 하북성 위주를 함락시키고 3만 명을 죽였다. 산의 계곡에 들어가 근 20일 동안 있으면서 병사 700명을 모아 사정방과 함께 안녹산을 구출했다. 안녹산이 그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얻었으니 어찌 다시 격정이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752년 하북성 북평태수를 겸하였다. 755년 안녹산이 하북에서

## 당나라로 귀순한 뒤 또다시 반란 도모

거병하자 난에 동참했다. 하북의 주요 성을 함락시키고 요양을 포위했다. 29일 동안 포위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하고 성 아래에서 이광필의 관군과 격돌해 패하였다. 이광필과 하북성 상산에서 40여일을 서로 대치하였다. 광자의 병사를 이끌고 오니 보병과 기병이 10여만이었다. 광자와의 무문성 남쪽에서 맞붙어 대패해 하북성 조현으로 도망쳤다.

757년 안녹산이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했다. 안녹산이 후궁 단씨가 낳은 안경서를 후사로 삼으려 하자 안경서가 취침 중인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안경서는 사사명을 범양절도사로 삼고 규천왕에 책봉하였다. 그는 강한 군사력과 강대한 재력을 믿고 교만하고 횡포하여 안경서가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당 황실이 장안을 수복하고 안경서가 연이어 싸움에 패하자 범양절도판관 경인지가 그에게 당으로의 귀순을 권하였다. “지금 당 황실이 중흥되고 천자께서 어질고 성스러우시니 그에게 돌아가시면 이것은 재앙을 돌이켜 복으로 삼는 계책입니다.” 결국 장수 두 자양을 파견해 13군과 8만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속중은 그를 귀왕·범양절도사로 삼고 아들 일곱명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하북이 거의 평정되었다.

경서가 사사명의 군영에 와 “신이 장안과 낙양에서 포위에 빠졌는데 멀리서와 구원해주니 큰 은덕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사사명은 그가 아버지 안녹산을 죽인 것을 비난하며 동생들과 함께 모두 죽였다.

하양에서 관군과 결전을 벌였는데 이광필, 하북정, 복고회는, 복고장의 맹활약으로 관군에게 참패했다. 761년 범양에서 대연황제에 즉위해 연호를 응천으로 바꾸었다. 낙양성 북쪽 땅에서 이광필·복고회는 군대와 맞붙어 관군이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양과 회주가 다시 반군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시기하고 잔인해 죽이기를 좋아했다. 반면에 장남 사조의는 겸손하고 사졸들을 아껴 부자 사이가 원만치 못했다. 어린 아들 사조정을 아껴 범양을 지키게 하고 그를 태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 사실을 눈치 채고 사조의는 부하 마열을 시켜 기습케 하였다. “지금 당 황실이 중흥되고 천자께서 어질고 성스러우시니 그에게 돌아가시면 이것은 재앙을 돌이켜 복으로 삼는 계책입니다.” 결국 장수 두 자양을 파견해 13군과 8만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속중은 그를 귀왕·범양절도사로 삼고 아들 일곱명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하북이 거의 평정되었다.

## 日 폭우 사망자 100명 넘어 주민 구조·수색 진행중

일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NHK가 9일 전했다.

NHK 집계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사망 112명, 행방 불명 79명, 중태 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112명은 2011년 태풍 12호, 2004년 태풍 24호 이후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일본 정부는 폭우 피해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에 대한 구조와 수색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폭우로 지반이 약화된 곳이 많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일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사망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9일(현지시간) 쿠마노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폭우로 붕괴된 주택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